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6.13.(목)

외교부 「아시아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국제회의」 개최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등 15개국에서 SMR 전문가 70여 명이 SMR 협력 방안 논의
- 미 국무부와 공동주최로 한미 원자력 협력 공고화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6.11.(화)-13.(목) 3일간 서울에서 「아시아 SMR 협력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운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등 15개국 70여 명의 SMR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 (행사 영문명) South, Central, and East Asia FIRST Regional Conference on Advancing the Safe and Secure Deployment of SMR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6.11(화) 개최된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소형모듈원전(SMR)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미래임을 강조하고, SMR이 탄소 중립, 에너지안보, 인공지능(AI)용 급증한 전력 수요 등 당면 과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번 회의가 SMR의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번 회의는 총 3일의 일정으로 △SMR 기술, △사회적 수용성 확보, △역량 강화, △새로운 규제 체계 △핵 안보 및 비확산 등 5개 주제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SMR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6.14.(금) SMR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붙임: 컨퍼런스 사진. 끝.

담당 부서	국제기구 · 원자력국 원자력외교과	책임자	원자력외교담당관	장성화 (02-2100-8436)
		담당자	행정사무관	성창원 (02-2100-7246)